

인문계 중심 ‘사탐런’ 본격화… “입시 지형 변화 불가피”

2026학년도 수시

수험생들 합격 확률 최우선 고려
인문계, 경쟁구도 한층 치열해져
자연계, 사탐불허 대학 지원 감소

수험생들이 대학 합격 확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택하면서 2026학년도 수시에 ‘사탐런(사회탐구 선택 쏠림)’이 본격화됐다. 그 여파로 인문계는 지원 열기가 커졌고, 자연계는 지원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서울대·연세대가 자연계 사탐을 불허하고 고려대는 허용하면서, 인문계 쏠림과 자연계 이탈, 그리고 자연계 내부의 고려대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 지원자 추이〉

학교명	2025			2026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서울대	648	5,219	8.05	647	4,873	7.53
연세대	956	13,935	14.58	965	14,274	14.79
고려대	1,203	23,116	19.22	1,204	23,226	19.29
성균관대	745	23,548	31.61	931	32,187	34.57
서강대	524	13,435	25.64	539	15,441	28.65
한양대	793	23,204	29.26	796	22,748	28.58
중앙대	1,207	27,362	22.67	1,194	28,514	23.88
경희대	1,030	26,216	25.45	1,014	24,995	24.65
한국외대	1,043	22,124	21.21	1,044	22,818	21.86
이화여대	987	9,934	10.06	971	14,467	14.9

10개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 수는 인문계가 전년보다 1만5450명(8.2%) 증가한 반면, 자연계는 6705명(3.2%)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인문계는

20.59대1에서 21.87대1로 상승했으나, 자연계는 25.25대1에서 23.82대1로 떨어졌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도

/종로학원

인문계 지원자는 103명 늘어난 반면, 자연계 지원자는 3436명 줄었다. 경쟁률은 인문계가 15.06대1에서 15.05대1로 비슷했지만, 자연계는 16.57대1에서 15.36대1로 하락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 지원자가 346명 줄었지만, 연세대는 339명, 고려대는 110명이 각각 늘었다.

자연계에서는 서울대가 1455명, 연세대가 2402명 감소했으나 고려대는 421명 증가했다. 이는 고려대가 올해부터 자연계에서도 사탐 응시를 허용한 반면, 서울대·연세대는 불허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쟁률은 서울대가 8.12대1(전년 9.07대1), 연세대 15.10대1(16.39대1)로 하락한 반면, 고려대는 20.35대1로 소폭 상승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도 확률과통계 응시자 비중이 전년 47.3%에서 57.1%로

크게 늘면서 순수 문과생도 증가, 인문계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졌다. 사탐 고득점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인문계가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연계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에다 사탐 불허 대학 지원자 감소가 겹치며 입시 환경이 불리해졌다. 특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한 변별력이 될 전망이다. 대신 불이익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극복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사탐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인문계 지원자는 증가하고 자연계는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2027학년도에는 현행 수능체제 마지막 해인 만큼 사탐런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29일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 개최

40개국 70개 도시 300여명 집결
오세훈 시장, 주요정책 공유 예정

국내외 70여 개 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등 30여 개 기관의 300여 명이 케데헌이 쏘아올린 도시,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총회는 제15차 회의로 세계대도시협의회, 이른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행사이며, 2002년 제7차 총회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메트로폴리스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대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5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국제도시 네트워크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또는 수도인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 163개 도시가 가입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시는 1987년에 가입해 2023년 제14차 브뤼셀 총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는 의장인 모로코 라바트 시장을 비롯해 뉴욕, 부에노스 아이레스, 바르셀로나, 도쿄, 광저우, 요하네스

버그, 이스탄불 등 전 세계 40여 개국, 70여 개 도시의 시장단과 대표단이 참석한다. 또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모리기념재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을 포함한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총회 첫날 개회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도시의 미래’라는 주제와 연계해 ‘서울이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과 주요 정책’을 세계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Jason Schenker)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The Futurist Institute) 의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참가한 각 도시들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행정·기업협력 등 전 분야 AI 도입

이동환 시장 ““AI 특레시’ 도약”

고양시(시장 이동환·사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G-노믹스 5개년 계획’에서 ‘AI노믹스’를 선포한 이후, 행정과 민원 서비스, 인재 양성, 기업 협력 등 전 분야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AI는 모든 산업의 기본 조건”이라며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AI 특레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 창 의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열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인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은 변리사 자문을 거쳐 시 명의로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AI 자동 추천 무인민원발급기 ▲AI 식품 이물 관리 시스템 등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카카오톡



기반 생성형 AI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무휴 24시간 증명 발급, 세금납부, 복지·건강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히 대응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로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내부 행정 효율화 역시 과제다. 시는 직원 수요를 반영해 법령·지침 검색,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비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협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롯데쇼핑과 ‘AI 기반 지역상생·스마트유통 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해 시민 우선 채용,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물류센터 내에는 시민 대상 AI 홍보관도 조성된다.

/고양(경)·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퇴직공무원 보조인력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퇴직공무원을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으로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의 인솔 부담을 덜어준다. 경험 많은 공직자 출신을 활용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

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은 교원, 소방, 경찰 등 교육 현장과 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 도보이동을 지도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안전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신설된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

해 보조인력을 각 학교와 연계한다. 학교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 인력도 확보해 학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런던 도심서 11만명의 극우파 반이민 시위… 반대파·경찰과 충돌
▲폴란드, 러시아 드론 위협에 예방 작전… 경계고조

/사진 뉴시스

▲日 사도광산 추도식, 韓 없는 반쪽 행사… ‘강제성’ 표현 또 빠졌다
▲찰리크크 추모 논란… 84만 유튜버 해썬 “무지했다” 사과

▲금값 랠리 계속되면…금 1kg으로 일본에서 집산다
▲‘오스카 수상’ 팔레스타인 감독 “이스라엘이 서안 집 급습”